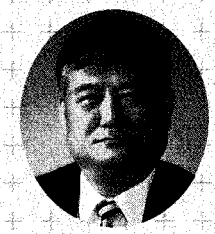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광주 · 전남지회의 발전을 꿈꾸며



임 헌 정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 · 전남지회 회장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 · 전남지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산부인과 의사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그 이름처럼 가족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은 바램

광주 기독병원 부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을시 2001년도 1월 협회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협회 임원 및 직원들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회발전을 위해 한 알에 밀알이 되어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04년도 1월 정기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지회장으로 연임되어 지회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되었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지회로 만들고자 한다.

2001년도 기독병원 부원장 퇴임하고서는 지금 광주에 있는 모아산부인과 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로 협회와 맺은 소중한 인연

1960년대 후반기에 한참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당시 "루프차"라는 mobile car가 있었는데 내가 수련 받던 전남대학교병원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선정 기념 현판식.

산부인과에서 그 차를 운영하여 주로 자궁내장치(Lippe's Loop)와 정관절제술로 전라남도 일대를 누볐다.

1970년대 초반부터 소위 개발도상국가인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세계인구협회의 지원으로 인구정책이나 가족계획의 선진 기술들을 수련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도 다녀온 일도 있었다. 그 후 필자는 기독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가협 광주 · 전남지회의 실행위원 중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 지회회장인 선배에게 이끌리어 가협과 인

연을 맺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 분야의 일을 통해 자문의 역할을 하면서 부회장을 16년동안 역임하게 되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열린 마음

협회와 인연을 맺은지가 어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처음 협회와 인연을 갖게 되었을때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외치는 때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출산장려운동 펴고 있는 현실로 바뀌게 되어 다시한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그 시절 협회를 방문할때면 정관 · 난관시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왜 불임시술 받으러 오셨습니까?" 질문하면 형제가 많아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적게 낳을려고 수술을 받으러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협회의 홍보가 잘되었다는 생각에 협회 식구가 된 것에 대해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었다.

또한, 광주 · 전남지회 회장으로 재직시에는 아가사랑 후원회 후원금을 전달 할 때였다. 협회도 직원들 스스로가 한푼 한푼 모아 기금을 마련 어려운 가정의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실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더욱 보람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후원금 전수식을 마치고 식당에서 환아 보호자와 대화를 하여보니 지금도 우리 사회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살아야겠다는 감명을 받기도 했다.

또 필자가 지회장으로 선출 되던 2001년 8월에 제10회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광주 · 전남지역 산부인과 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 받았을 때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협회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저출산 및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 할 일들이 많다고 본다. 육아 및 보육 시설이나 교육제도 및 교육비 문제 등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문제일 것이며 그 외 정치적 · 사회 ·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데 돌봐 줄 사람이나 양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양육시설을 설치하고 협회에서는 지난날 가족계획사업을 할 때와 같이 모든 노하우를 발휘하여 홍보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독신자들의 결혼기피 현상이 늘어가고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생활할 때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적응 협회 내 전담 진료시설 및 치료실을 갖추고 노인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협회는 그 이름처럼 출산에서 육아, 청소년, 질병, 노인문제 등 가정에서 일어 날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에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 · 전남지회 임헌정 회장은 광주기독병원 산부인과 과장, 모자보건센터 소장, 광주시의사회 감사와 부회장을 역임하고 전남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및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모아 산부인과 원장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 · 전남지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모성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